

광주·전남 늦은 밤 이용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없어

## 아이들 위한 ‘야간 병원’ 필요

대형병원 응급실서 장시간 대기  
의료수가 등 이유 병원들 기피  
시·도 뒷짐에 부모들 분통

■. 광주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33)씨는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광주에 사는 것 자체가 서럽단 생각이 든다. 오후 10시가 넘으면 주변에 문을 연 병원엔 커녕 약국도 없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감기, 복통이어서 주간에 5000원도 들지 않을 진료비가 야간 응급실이라는 이유로 최소 2만 원을 웃돈다. 김씨는 “지방이라고 밤에 문을 연 약국과 일반 병원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시정이 병원과 약국 감도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분통터진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병원들이 소아 경증환자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에 병원과 약국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신청을 외면해 어린이들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야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광주·전남 어린이들은 야간에 아플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장기간 기다리며 진료를 받아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비교해 10배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처지다.

대구와 부산, 전북 등 타시도의 경우 영유아 부모 부담을 줄이려고 병원과 약국을 설치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아, 달빛어린이병원·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전남도의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달빛어린이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9개 시·도에는 야간과 휴일 몸이 아픈 영유아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지정·운영되는 달빛어린이 병원이 총 18곳이 있다. 약국은 전국에 24곳이 지정·운영 중이다.

서울은 4개의 병원과 약국 8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평일 오후 6시부터 지정까지는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최소 밤 11시까지 병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환자들을 받는다. 대구·경북의 경우 약국과 병원 2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 곳도 운영된 적이 없으며, 병원이나 약국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탓에 광주와 전남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우 야간과 휴일에 자녀가 아프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대형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달빛어린이병원보다 적게는 4배부터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먼저 응급실을 찾더라도 다른 응급환자가 오면 순서가 바뀌는 등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부모들로부터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진료비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는 기본 진료비에 정액제로 운영되는 본인부담금 2690원만 추가하면 된다. 감기로 병원에 갔을 경우 주간에 진료비가 3000원이 나왔다면, 달빛어린이병원에선 3000원에 본인부담금 2690원을 더한 5690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병원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야간가산율 등이 적용돼 기본으로 4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주 이상 공도했지만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의사들이 돈 보다는 여가를 즐기려는 성향이 강하고,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병원에 환자들이 주야로 몰려들까봐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병원들이 서로 답합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애를 먹었다”면서 “지역주민 부담을 어떻게 줄이려고 병원을 간절하게 설득한 결과 약국 3곳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변호사 시험 앞둔 로스쿨생 책 도난…범인은 치매노인

변호사 시험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요약정리해 둔 서적을 잃어버려 발을 구르던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4일 만에 책을 되찾았다. 범인은 90대 치매노인으로 밝혀졌다.

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원룸에 살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인 경모(여·27)씨가 잃어버린 책을 찾아달라며 신고했다. 경씨는 오는 10일 서울에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공부 내용을 정리한 요약노트와 법률 서적 등을 방 밖으로 잠시 내놓았다가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 근처의 CCTV를 분석하고, 동네 주민을 상대로 탐문수색에 나서 나흘 만에 책을 되찾았다.

책을 훔쳐간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90대 치매환자 박모(91)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씨의 책이 박씨의 집 마당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되었으며, 박씨는 4년째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이제 초등학생 돼요”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일인 5일 광주시 서구 유촌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면접을 마친 예비 초등학생이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국민의례 때 ‘5·18, 세월호’ 묵념 못할 판

### 행자부 묵념 대상자 제한…“반민주적 역사 인식” 비난 빚발

정부가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령 제 363호)을 개정,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례 개정에 따라 묵념 대상자가 순국선열·호국영령으로 국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희생자 등에 대한 묵념이 사실상 금지됐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자로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한 뒤 최종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달 1일부터 시행 협조해달라”고 통보했다.

국민의례 규정은 정부 행사 등에서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대통령령(행정규칙)으로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묵념 대상(제7조)을 엄격히 제한한 데 있다. 신설된 규정 7조 2항은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순국선열, 호국영령은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이 대표적이다.

훈령 개정으로 묵념 대상자를 못박아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항쟁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 등은 임의로 추가할 수도 없도록 국가가 통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민주연합당 광주시당은 5일 성명을 내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있는 5·18을 부정하는 박근혜·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반민주적 역사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묵념이나 애국가 제창 방법 등 사소한 것까지 국민을 통제하려는 대단히 위험한 국가주의적 태도”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구보수 세력들의 맞불 집회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등 모든 사안들에 색깔론을 제기해 수구세력을 결집하고, 박근혜 체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 성추행 칠레 주재 외교관 수사 광주지검이 맡아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50) 검사관에 대한 수사를 광주지검이 맡게 됐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박 검사관 사건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돼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대

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박 검사관의 주소지가 광주지검 관할이어서 사건을 광주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고소장과 현지 방송 촬영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관은 지난해 9월 13세 미성년자인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18 단체 관계자도 “정부가 연초부터 나서 규정을 개정해 묵념 대상자를 한정한 것을 보면 일부러 계층 간, 지역 간 분열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주최 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4·3 희생자 추념일에는 그 성격에 맞춰 희생자 영령을 포함한 묵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호기자 khk@kwangju.co.kr

### 음주운전자 뒤따라가 고의사고

○~렌터카를 이용해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유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될 처지.

○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심모(30)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광산구와 서구, 북구의 유흥가를 돌며 음주 운전자들을 뒤따라가 16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새벽 “광산구 월계동에서 음주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달아나고 있다”는 심씨 일당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장사고’임을 간파했는데, 심씨는 경찰에서 “합의금을 안 주는 남성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CCTV를 보고 계획된 위장사고라는 것을 밝혀낸 줄은 몰랐다”며 패는 후회. /김현호기자 khk@kwangju.co.kr

## 광주·전남 저수지 사망사고 잇따라



5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각화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체를 119대원들이 운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에서 저수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오전 10시14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각화저수지에서 A(여·5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저수지 주변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인 4일 오후 8시30분께 집을 나간 뒤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예전에도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4일 오후 3시58분께 함평군 엄다면 성산저수지에서 B(7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행방불명된 B씨를 찾아 나선 가족이 시신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간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

#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열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
| 인문 | 신 학 과     | ○    |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    |
| 사회 | 사회복지상담학과  | ○○   |
| 사범 | 유아교육과     | ○    |
| 예능 | 음 악 학 과   | ○    |
|    | 실용음악학과    | ○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영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계열 | 모집학과      | 모 집 인 원    |            |                                   |
|----|-----------|------------|------------|-----------------------------------|
|    |           | 정원내        | 정 원 외      |                                   |
|    |           | 일반편입 (3학년) | 학사편입 (3학년) |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
| 인문 | 신 학 과     | ○          | ○          |                                   |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          |            |                                   |
| 사회 | 사회복지상담학과  | ○          | ○          |                                   |
| 사범 | 유아교육과     | ○          |            | ○                                 |
| 예능 | 음 악 학 과   | ○          |            |                                   |
|    | 실용음악학과    | ○          |            |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영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믿음이 있는 대학·민음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대 학 원   | 과정 | 모 집 학 과         | 모집인원 | 전 형 일 시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   | 2017. 2. 8(수)오후 3시   |
| 일반대학원   | 박사 | 목회학과(D.Min.)    | ○    | 2017. 2. 8(수) 오전 10시 |
|         | 석사 | 신학과(Th.M.)      | ○    |                      |
|         |    | 유아교육학과(M.Ed.)   | ○    | 2017. 2. 8(수)오후 3시   |
| 상담치료대학원 | 석사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    |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사회복지학과(M.S.W.)  | ○○   | 2017. 2. 8(수) 오후 3시  |
|         |    | 평생교육학과(M.Ed.)   | ○    |                      |
| 국제대학원   | 석사 | 한국어교원학과(M.A.)   | ○○   |                      |
| 음악대학원   | 석사 | 음악학과(M.A.)      | ○    |                      |
|         |    | 실용음악학과(M.A.)    | ○    |                      |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모집학년 | 모집인원     | 지원 자격     |
|------|----------|-----------|
| 2학년  | ○명 (주·야) | 2학기 이상 수료 |
| 3학년  | ○명 (주·야) | 4학기 이상 수료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